

도시민 귀촌을 위한 살고 싶은 농촌 가꾸기



김성순 귀농인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우리 부부가 젊은 나이에 귀농을 결심한 것은 도시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풀고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유기농 야채와 건강생활을 하기위해서 귀농을 결심했다. 그런데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농촌에 내려와 터전을 제대로 마련하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상상도 안하고 시간이 나는 데로 취미로 주말농장을 분양 받아 5평에서 10평을 5년 동안 지어 보았는데 그 즐거움은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전해주었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기회였던 것 같다.

밭을 연초에 구청 소식란을 통해 분양 받아 4월경부터 씨를 뿌리고 6~7월부터 수확해서 먹으면 농촌에 대한 갈망이 더 커져서 귀농을 준비를 한다고 열심히 농사도 지어 보고 수확도 했으며 농업기술협의회에서 하는 웰빙 농사학교에 가입해서 한 달간의 농사 지식과 실습을 했다. 먼저 귀농을 한 선배님의 집에도 방문하고 농가에도 방문해서 농촌의 현실도 접해 보았다.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살고 있는 생활이 행복하다고 하시지만 도시에서 살았던 우리부부와 아이들은 막상 농촌으로 귀농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

큼 제대로 농촌에 생활을 하며, 잘 적응하면서 농촌생활에 깊게 뿌리박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다. 첫 번째 어려운 문제는 농가주택을 얻는 것이었다. 차를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녀 보았지만 우리 부부가 상담할 곳이 그다지 많지가 않았던 것 같다.

귀농지를 임대로 들어 가야하나 어디를 장소로 해야 할지 막막했으며 편안하게 살만한 곳이 없어 부동산신문을 보고 지금의 정착지를 계약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을 해봐도 무척 대고 농가주택을 임대로 들어갔던 것 같다. 작년 10월 말경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에 집을 전세로 계약했는데 집은 건평이 30평창고와 축사 밭 천평 가량을 계약기간 2년으로 하고 이사를 했다. 두 번째 문제는 귀농인을 위한 지자체의 상담창구가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 면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도 이전하고 학생들 전학도 시키고 일을 보고 나서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서울에서 귀농하기 위해서 왔는데 농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혹시 귀농하는 주민을 위해서 농사교육이나 귀농희망자에 대해서 귀농 준비단계

에서부터 정착까지 주택, 농지, 자금, 영농기술은 물론 정착에 필요한 지자체의 행정은 없느냐고 물어 봤다가 우리 부부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 될 뻔 했다. 그것을 현실 아닌 현실이었다. 이곳 경기도에서... 몇몇 곳은 귀농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복지 생활 공간 도시민의 농업 체험 및 교류, 교육 여가 공간도 마련해 주며 귀농민이 살기 편하고 생활하기 좋게 만드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 그러지은 안아 보인다. 일을 마치고 늦은 저녁에 집에 도착 했는데 우리 집이 또한 너무 외진 곳에 있는 것이었다. 이웃집과 떨어져있는 외딴 집 도로를 건너야지만 앞 동네가 보이는 그런 곳이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젊은 우리부부에게는 중학생 과 초등학생 아이 둘이 있는데 도시에 아이들이나 시골의 아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는 서로 도와주면서 환영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초등학생인 아들은 그런대로 잘 적응을 하였지만 큰 애 중학생은 도시아이라는 편견으로 하여 적지 않은 어려운 현실에 노출되고 말았다. 어려움은 낯선 삶이 주는 두려움, 익숙하지 않은 생활의 불편함이었다.

친구들은 학기말에 전학 온 아이를 본인들은 도시의 아이가 왜 이런 구석진 시골에 와서 잘난 척할 거라는 선입견으로 한 아이를 학급에서 왕따를 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일을 겪은 아이는 학교를 다니기 싫어하고 학교생활에 곁돌기 시작했다.

가족모두 농촌에서 행복하게 살기위해 왔지만 아이의 문제는 가족모두의 중대한 과제가 되고 말았다. 도시생활만 하였던 아이는 농촌의 친구들이 본인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좋은 쪽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럴 수록에 더욱 더 도시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우리 부부 또한 서툰 농사일과 육체노동 등의 문제에서부터 가족간의 문제, 마을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농사를 통한 경제적 소득의 열악함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으로 일이 겹치게 되었다. 이처럼 귀농은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시골의 경제 활동은 가축을 기르거나 농작물을 심는 것이다.

우리처럼 초보 농사꾼은 일 년을 농사를 지어도 연간 수입이 5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이 돈으로 네 식구 생활비도 부족하기에 3년은 먹을 것을 가지고 귀농을 해야지 된다는 말이 나온 것 같다. 마음을 수습하고 밭을 정비하기 위해 밭에 들어갔는데 옷에는 가을이라 도깨비 풀이 다닥다닥 붙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풀이 키 만큼 자라 있어서 도저히 손으로 할 수가 없었다.

밭의 상태가 3년간량 묵혀 있었던 관계로 중장비를 동원해서 말끔하게 정비하였으며 다음 절차로 밭을 고르는 것인데 이것은 이웃에 사시는 이장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했다. 집이 산으로 둘러싸 있어서 공기는 좋았지만 늦가을인데도 집 근처에 뱀도 지나가는 것이었다. 벽 갈라진 틈으로 숨어 버리는 뱀을 보는 순간 무서움보다는 두려움이 더 커졌다. 그날 저녁 인터넷에서 뱀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없나를 연구하다가 잠들고 말았다.

이곳에는 시내버스 또한 한 시간에 한 대 밖에는 없다. 아이가 차 한 대를 놓치면 집에 있는 차를 타야 하는데 이것 또한 힘든 일이었다. 시골길은 도로에 인도가 없어서 연세 드신 어른이나 아이들은 교통사고에 무방비 상태였다. 생활환경의 차이와 문화적 차이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도시가 살기에 좋은 것임을 느끼게 만들었다. 좀 더 국토의 균형 발전이 되고나서 귀농을 결심했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배가 50대 중반을 바라보시는 어른들께서 자신들 모두 출가시키고 “노년에 시골에 내려가서 살아



귀농한 안성집 마당에서

야지”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다. 그만큼 젊은 부부에게는 농촌의 현실이 도시민이 정착하기에 힘든 점이 많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임을 이제야 알 것만 같다.

우리 부부의 귀농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현실과 과제가 있는 것 같다.

귀농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IMF 사태로 인한 대량 실업의 발생 등에서 보듯이, 현재의 산업구조, 도시중심의 사회형태가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결코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간과되고 외면되어 오던 농촌, 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되고 있지만 농촌으로 돌아가 최소한 자신과 가족들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만이라도 스스로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귀농하는 사람들도 그 수가 상당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농희망자에 대해서는 귀농 준비단계에서부터 정착까지 주택, 농지, 자금, 영농기술은 물론 정착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로 이뤄진 토털 맞춤형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귀농강좌와 선도농가에서 6개월~1년간 현장실습도 병행할 계획을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는 준비해야 된다고 본다.

한 예로 전남도는 2005년부터 전국 귀농운동본부의 귀농학교 교육과정 수강료 지원과 함께 창업농 후견인제, 농업 인턴제도 등 최근 새롭게 제시된 국가시책도 도 실정에 맞춰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귀농한 이들 중에는 농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다시 떠났던 도시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귀농의 흐름 속에서 귀농 실패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참 불행한 일이다. 귀농의 실패란 농촌에 살던 사람이 도시로 떠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고통과 좌절이며 삶 그 자체의 실패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귀농이란 무엇이며, 올바른 귀농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특히 농촌에, 흙에 뿌리내리기 위한 마음가짐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다.

정부 차원에서도 위의 예를 들었던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귀농인을 위해 대책이 있어야 하며 모든 기반 시설을 준비해서 농촌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어야지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막을 수가 있고 농촌의 생활 수준 또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진다고 본다.

짧은 귀농 생활동안 느낀 점과 바람을 몇 자 적어 보았는데 귀농인을 위해서 많은 정보와 정책이 뒷받침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도시에서 다 키우고 나서 농촌생활을 하지 않고 젊은 청장년층이 농촌으로 이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다 살기 좋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가꾸기에 최선을 다해 봅시다. 감사합니다.